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중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일 서울 국회 대회의실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염원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에 김관영 도지사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여야 국회의원, 재경도민회, 전주·군산·익산 상공회의소, 애항본부 등 도내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전북 최대 한민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 최대 현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전북도민 역량 '총결집'

### 국회사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

정세균 전 총리·여야 국회의원·재경도민회 등 참석  
유치 전략담은 대도민 보고·결의 세레모니 등 진행  
김관영 지사 "마지막까지 도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재경도민회 전주·군산·익산 상공회의소, 애항본부 등 도내 각계 각층의 대표자들이 1일 국회 대회의실에 모여 결의를 다졌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열린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에는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북도의회 이차전지 특위가 주최하고 새만금사업법도민지원위원회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참석했고, 특히 여야의 지도부를 포함한 국회의원 16명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6명의 의원들은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현장에 참석한 의원은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

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정운천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진선미·전혜숙·김성주·강병원·신영대·윤준병·이원택·강성희·김의겸·양경숙·최강욱 의원 등이다

또한, 강임준 군산시장, 성일하이텍 등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기업의 CEO 등 각계 각층 주요 인사가 모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간절한 결의를 다졌다

결의대회는 지난 2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신청을 시작으로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달려온 전북도의 노력을 담은 홍보영상 상영, 특화단지 유치 전략과 추진계획을 담은 대도민 보고, 특화단지 유치 결의를 다지는 세레모니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

치 대도민 보고는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나섰다. 김 지사는 이차전지 산업의 비전을 수립한 때부터 지금까지 전북도가 쏟은 열정과 도전의 과정을 도민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 지사는 대도민 보고를 통해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관련 7조원의 기업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새만금이 이차전지 관련 최적의 땅"임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학생 등 도내 청년들 또한 함께했다. 청년들은 결의문을 통해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고 전북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시작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가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북의 힘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만들어왔다"며, "이제 특화단지가 유치되면, 전북은 비상할 것이다. 도전경성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결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위원장 국무총리)을 거쳐 7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감염병 위기 '경계'로 하향

7일 격리 의무 등 대부분 방역정책 '권고'로 전환  
도 방역당국, 손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 당부

전북도는 6월 1일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28일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조정한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적거리두기,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확진자 격리 의무 등 다양하게 추진된 방역정책 대부분이 권고로 전환된다. 이에는 감염취약시설과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만 남게 됐다.

달리진 방역정책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확진자·사망자 등 통계발표는 일일 단위에서 주간(주회)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기관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만 유지된다. 또 해외입국자 입국후 3일차 검사권고도 종료된다. 그 밖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에게 주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 조치도 이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방식으로 완화되며, 방역수칙 준수하에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졌다.

단계 조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한 지원은 계속된다. 임시산별진료소 운영이 없던 전북도는 기존 선별진료소(26개소)를 그대로 유지·운영한다.

코로나 환자의 진단과 처방까지 한꺼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436개소)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격리입원치료비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도 유지되며 백신접종과 먹는 치료제도 무료지원이 계속된다.

코로나19 확진된 학생의 경우 격리 권고 기간의 결석(9일)은 출석인정결석 처리된다. 등교 전 의심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또한 격리자가 사립 응시시 관할 보건소 등에 외출허용 승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외출허용 승인 없이 사립 응시가 가능하다.

한편 전북에서는 2020년 1월 3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106만4,883명이 확진됐다. 이는 전북 도민 60%에 달하는 수치다. 사망자는 1,237명이다.

도 관계자는 "위기단계가 조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고 고위험군에게는 중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연 1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중증화 방지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도내 6월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풍성'

새만금 철인3종 경기  
불령협회장배 불령대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전국시도대항양궁  
종별배드민턴선수권 등

초여름을 알리는 6월에도 전북 지역 곳곳에서 크고·작은 체육대회(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1일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이날 도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체육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군산시 일원에서 1,200여명의 선수와 임원 등이 참가하는 군산 새만금 국제 철인3종 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정읍시가지 전국남여궁도대회는 오는 10~12일 정읍사에서 열리며 제24회 대한불령협회장배전국불령대회는 11~23일 전주시 일원에서 진행된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약 1,800명이 참가하는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오는 15일 진안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 대회에서는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 체조, 탁구, 테니스 등 9개 종목이 진행된다.

정읍 내장산배 전국중고배구대회는 15~21일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읍시 일원에서 열리며 화랑기 전국시도대항양궁대회는 19일부터 6일간 임실군에서 진행된다.

또 익산첼린자아쿠아슬론쉽페어인심사티즈대회(24~30일)가 익산 국제철인3종경기장 일원에서,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익산시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밖에 태권도와 축구, 테니스 등 도시샤배 대회도 열린다. /뉴시스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